

# 안전 작은 투자로 생명을 구합니다.




농촌사랑  
건강사랑 I LOVE 乳™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정영달 과장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1985년 여름 어느 날, 난 전날 비를 맞으며 아이들과 들판에서 놀았던 탓에 독감에 걸려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마루에 앉아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친구 대원이, 같은 반 친구였던 대원은 비에 흠뻑 젖은 가방에서 흰 우유를 꺼내며 오늘 내가 결석해서 대신 갖고 왔으며 내게 우유를 건넸다. “비도 오는데 그냥 네가 먹지 그랬어?” 라고 나무라면서도 친구가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의 안전·보건·소방·인사·노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정영달 과장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영주에서 살았다. 서울로 올라와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첫 직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업무에 적응이 되어갈 쯤, 안전에 대한 보다 깊은 전문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껴 경희대학교 대학원 안전공학과에 뒤늦게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였다. 학교를 졸업하던 1991년 이곳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 후 어느새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가 입사한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은 1989년에 신설되었던 탓에 모든 업무와 환경이 새롭고 제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선임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제대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정영달 과장으로서 더 더욱 낮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다. 또한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 직원들이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 운전을 하다가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녀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관리자로서 직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면서, 그 때부터 최우선으로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무재해 운동, 재해통계기록의 활용을 통한 재해 원인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에 대해 체계화를 꾀하였다. 그러한 노력이 조금씩 쌓여 재해건수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향상되어갔다. 자체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은 어느덧 무재해 980여일을 달성하는 등 안전은 이제 생활이 되어 간다. “포상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정영달 과장, 이번 2007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서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것도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 말한다. 작은 투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이야말로 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보람 있는 일이라는 그의 말처럼 그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